

# 세밑 축제에서 신년의 기운을 느껴보자

곧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의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한 해를 열심히 산 자신과 가족에게 축하와 축제를 선사하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우려가 가시지 않아 아쉽게도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축제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고 하는 '호랑이 꼬리 마을', 포항 호미곶에서 해맞이 축전이 열리는 등 축제가 간간히 열린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때 축제가 발산하는 긍정 에너지에 빠져보자.



1

## 오색별빛정원전 2020(12.6~2020.3.22)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이 여는 이 축제는 10만여 평의 야외 정원 곳곳을 다채로운 조명과 빛으로 밝히는 야간 조명 점등 행사다. 자연과 빛의 조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빛의 풍경을 표현한다. 관람객들은 인공적인 조명 속에서도 한국 자연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이 축제는 매년 12월과 3월 사이에 개최되며, 수목원 내 정원을 밑그림 삼아 친환경 소재인 LED 전구를 사용해 화려한 빛의 향연을 연다.(www.morningcalm.co.kr)



2

## 서울디저트페어[딸기전] 2019(12.28~29)

국내 최대 수제 디저트페어를 자부한다. 올해는 겨울의 대표 과일인 달콤한 딸기를 주제로 상큼한 디자인의 마카롱, 수제청, 에이드 카놀리 등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꿀케이크, 두부 아이스크림 등 이색 디저트는 달콤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취향을 저격하는 핸드메이드 '수공예존'도 만나볼 수 있다. 각 지역의 디저트 맛집이 양재 aT센터 전시관에 모인다.(http://bit.ly/2ptKvXN)



3

##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2019(12.31~2020.1.1)

포항 호미곶(虎尾串)은 한반도의 가장 동쪽이다. '호랑이 꼬리 마을'이라는 뜻의 호미곶은 한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일출명소이기도 하다. 호미곶의 빛은 생동하는 포항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문화 공연, 새해맞이 경축 행사, 불꽃쇼 등이 펼쳐진다. 소원지 작성, 떡국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지난해를 돌아보게 하고 희망찬 새해를 '생동감 넘치는 새 기운'으로 가득 채워 줄 것이다.(http://phfc.or.kr)



4

## 부산국제아트페어 2019(12.5~9)

올해 17번째 열리는 부산 중심 미술시장이다. 이 아트페어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아트 디렉터 역할을 자임한다. 올해는 김호연, 최성원 등 국내 신구상을 대표하는 작가, 인도의 거장 룸 팔라니얍판 등 유명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 페어에는 국내외 현대미술작가 250여 명의 작품 3천여 점이 선보인다.(http://biaf.kr)



## 2019년 12월 축제 일정

- 1
- 2
- 3
- 4
- 5
- 6
- 7 + 부산국제아트페어
- 8
- 9
- 10
- 11
- 12
- 13 + 오색별빛정원전 ~2020.3.22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겨울빛축제 'DDP 라이트'
- 27
- 28 + 서울디저트페어 [딸기전]
- 29
- 30
- 31 +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 2020년 1
- 2
- 3

※ 축제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겨울빛축제 'DDP 라이트' (12.20~2020.1.3)

올해 연말연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물 외벽은 전면이 거대한 전시장이 된다. 해가 지고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DDP의 은빛 굴곡진 외관에 화려한 빛과 영상, 음악이 결합한 대형 라이트 쇼가 펼쳐진다. 압도적 규모와 눈을 뗄 수 없는 역동성이 동대문의 야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DDP 라이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기술이다. 축제 첫해인 올해 주제는 '서울 해몽'(SEOUL HAEMONG)이다. 서울과 동대문의 역사와 현재·미래를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로 보여준다.(www.ddp.or.kr)